

# 대중가요를 '읽으면' 당대인의 욕망이 보인다

《홍남부두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펴낸 이영미 교수

1980년대 초부터 1세대 노래평론가로 대중가요 읽기에 앞장서온 이영미 교수(41,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홍남부두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황금가지)를 펴냈다. 제목부터 눈길을 확 잡아끄는 이 책은 트로트의 전성시대였던 일제강점기부터 서태지 이후 1990년대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대중가요 노랫말을 통해 한국대중가요사 1백년을 조명한다. 또한 대중가요에 반영된 서민의 사회심리와 취향을 섬세하게 읽어낸다.

“우리 사회에서 대중가요는 아직도 하위문화, 저급한 문화로 인식하는 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죠. 대중가요는 나를 포함한 당대 대중의 사회심리와 욕망이 반영된 한 시대의 정신적인 산물인데도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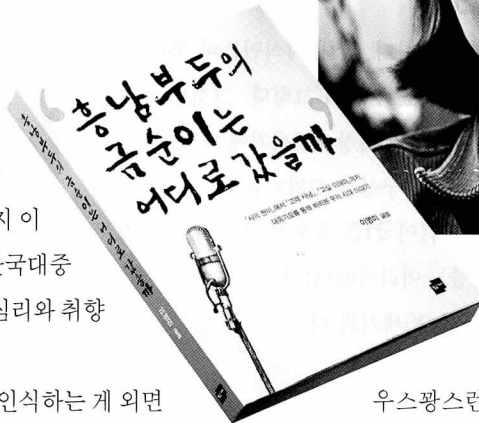
한번 잡으면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속도감 있는 문체와 재치 있는 입말은 이 책의 미덕. 그 바탕엔 문학전공자인 이교수의 언어에 대한 남다른 자의식이 깔려있다. 그가 강조하는 건 대중가요에 대한 인식전환인데, “모든 노래는 음악과 문학이 결합된 것”이라며, “노래는 일방적으로 음악”이라는 통념을 깰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살 때부터 한명숙의 <그리운 얼굴>을 부르고, 열살 무렵 이미 김민기와 송창식 팬이 돼버린 그도 트로트 앞에선 벽에 부딪혔다. 스스로 트로트는 친박하다는 편견을 넘어서기 힘들어서였다. 1980년대에 심취한 민중가요는 이런 고민을 풀어주고 대중가요 연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한 징검다리였다.

“어느 날인가 마흔 줄을 넘어선 아저씨들이 눈두렁에 서서 막걸리를 마시며 부르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때 삶의 애환이 녹아든 그 구성진 트로트 가락을 들으며 생각했죠. 저 노래를 감히 누가 친박하다 하겠는가. 결국 문제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데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책은 모두 6부로 나뉜다. 1920년대부터 해방전후까지 아우른 1부는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음치였다”는 도발적인 선언을 시작으로 신세대 고급음



이영미 교수  
황금가지/A5신/366면/15,000원



악이었던 트로트가 촌스럽고 우스꽝스런 음악으로 변질된 과정을 살폈다. 2부부터는 10년 단위로 시대를 구분한다. '삼팔선 해매는 아리조나 카우보이의 시대'인 1950년대부터 '서태지 이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대'인 현재까지 이교수는 한 시대를 꿰뚫는 대중가요의 특성을 톡톡 튀는 소재목으로 명명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대중가요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장르의 이식성'을 이끌어낸다.

“장르의 이식성은 우리 문화의 외래 의존성을 대변하죠. 예컨대 1950년대는 전쟁의 상처를 달래는 수단인 하나로 '비너스' '샌프란시스코' 등 '외색' 짙은 노래들이 많이 불렸죠. 검열, 방송심의 등이 대중들의 취향마저 제한해온 통치세력의 보수성도 빼놓을 수 없구요.”

연극비평과 노래가사 비평을 함께 해온 그는 이제 TV 드라마 등 대중예술 전반으로 관심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 대중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예술의 좀더 원론적인 문제들을 고민해볼 생각이다.

— 박옥순 기자

**한글과 컴퓨터 제휴 회사 - 진솔컴퓨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PDF문서로 만들어드립니다.

**PDF 문서의 활용 분야**

- 웹(WEB)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보게 하거나 배포할 때
- 전자문서  
일반 기업의 사내 문서나 연구자료를 보관하려 할 때
- CD-ROM  
CD-ROM을 통해 출판 분야에 활용하려 할 때

어떤 응용프로그램에서도 원본 그대로 놀라운 압축률

Web·DTP·Graphic  
**진솔컴퓨터**  
Tel. 2268-9727(대표)  
541-5027-9 Fax. 515-2589  
www.jinsolbooks.com  
담당 : 정경아

**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EASYTABLE**

아래한글에서 만든 표를 QuarkXpress에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주요기능**

- 아래아 한글문서를 QuarkXpress 문서로 자동변환/● 마우스 작업으로 표를 신속히 작성하고 선택된 텍스트를 내용으로 입력/● 칸을 다중선택하고 내용을 복사/● 표 크기 또는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쉽게 변경/● 칸을 합치거나 나누기/● 행이나 열을 삽입하거나 삭제/● 칸에 속성을 지정하고 복사/● 각 칸은 텍스트칸 또는 그림칸으로 지정/● 행/열 경계선과 표 테두리에 속성을 지정/● 칸의 합을 구하기

**제품가격**

- 1User용: 600,000원(부가세 별도) ● 2User용: 1,000,000원(부가세 별도)

사용환경 QuarkXpress 3.3k

**제품구입처 : 도서출판 진솔북스 TEL 02)2268-9727 FAX 02)515-2589**  
**한맥 소프트웨어: TEL:3452-7235, FAX:3452-7238 www.hanmac.com**

# 이 시인이 세계와 불화하는 방법

《물 밑에 달이 열릴 때》 펴낸 김선우씨

《내 혀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의 시인 김선우씨(33)가 첫 산문집 《물 밑에 달이 열릴 때》(이상 창작과비평사)를 펴냈다. 김씨의 이번 산문집은 찬상의 이미지들을 모아놓거나 감성적인 언어들로 가득찬 시인들의 여느 산문집처럼 나긋나긋하지 않다. 시인은 때로 시적인 이미지로 가득찬 문장을 외피로 두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강단질 뿐 소리가 높진 않다. 그의 문장들에는 시인 안도현의 말처럼 “금세 터져나올 듯한 울음”도, “자분자분 숨쉬는 말의 숨결”도 섞여 있다.

이 책에서 김씨는 시인이라는 존재가 세상과 불화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29살부터 “느리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써온 이 글들은 그의 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불화하고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지 보여준다. 그가 세상과 불화하고 다시 창조하는 방법은 모성을 잃어버린 세상을 뒤집고 진정한 모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관습화된 모성을 뒤집으면서 어떻게 여성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지 고민해왔죠. 생태회복이나 우주 어머니와의 만남 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정한 모성의 회복뿐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산문집에는 달, 바다, 영성 같은 여성적 이미지들이 빈번히 보인다. “나는 달의 꿀을, 달의 피를 받아마시고 당신과 나의 몸의 시간으로 갑니다”나 “달의 아이들이 내 몸 속으로 건너옵니다” 같은 문구들도 그런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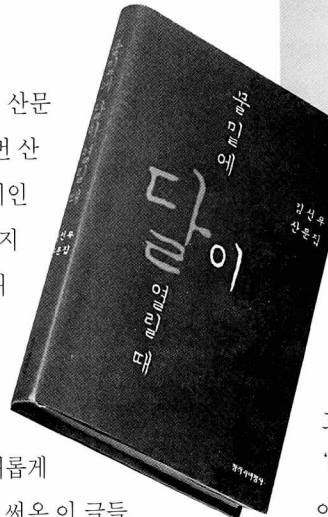
이 산문집에 실린 글들은 김씨가 자신의 한 시기를 건너오면서 시와는 다른 종류의 발화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씌어진 것이다.

“시는 어느 정도 우연의 산물이에요. 자기 의지만으로는 안돼요. 그 의지에 맞는 시의 몸을 만나야 탄생하죠. 그러나 산문은 8할 정도는 자기 의지로 가능해요. 제 의지로 저는 제 몸에 쌓여 있던 것들을 걸러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김선우씨

창작과비평사/A5변형/246면/8500원



그가 찾아낸 새로운 발화방식은 주로 고백적 형식으로 드러난다. 그의 글은 자주 ‘당신’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 당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기도 하면서 출가한 그의 큰 언니이기도 하다.

그는 학원강사를 하면서 강원도 문막에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 그 후로 이른바 전업시인으로 살고 있다. 늦게 일어나서 밥먹고 산책하고 책 읽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디든 간다. 가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머물다가 돌아와 글을 쓴다. 며칠 몸살을 앓듯 글을 쓰고 또 며칠은 그걸 버리는 일에 할애한다.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많이 소비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그의 이해하는 기자에게 웃어보인다.

김씨는 이제 두번째 시집을 묶을 준비를 하고 있다. 당분간은 작품 발표를 자제하면서 “내 안에서 되겠다 싶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다. 그의 시집이 이 산문집과는 다르게 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해낼지 기다려진다.

— 김장근 기자

**출력" 24시간**  
당신을 위한 **논스톱**  
대동이 책임지겠습니다  
**자동하리꼬미무료**  
대동전산

**IBM & MAC 전문출력**  
Corel Draw, 아레한글, MS-Office, 훈민정음, 매킨토시등 기타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및 IBM 분판출력  
필름분판출력(4x6전지)  
고해상대형드럼스캔  
대형실사출력, CLC칼라출력  
인화지, 단도필름, 레이저프린트  
칼라복사(다량복사시할인)  
Data CD Backup  
출력문의 환영합니다

**대동전산**  
2275-0196~7  
E-mail: sogo0318@chollian.net  
명보극장  
울지빌딩(충구, 울지병원)  
대동전산  
울지로3기 지하1층 10번출구  
울지도림시장